□전시회를 준비하며

생약농업 활성화 계기로

임 연 학
〈한국생약협회장〉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성의약품의 부작용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분과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한약재의 소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약재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의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한약재가 들어와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고 있어 재배한 한약재를 제값받고 팔기 어려움 등으로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의 아픈곳을 어루만져주고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생산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농촌인구의 감소화, 고령화로 한약재 생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매년 생약협회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학·연 공동으로 재배기술개발, 생산의 기계화, 한약재를 이용한 제품개발등 각 고장의 실정에 맞는 주산단지 육성책 등이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신 생약의 국제정보와 새로운 재배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항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영세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미약한 힘으로는 어려운 형편이다. 협회가 주최하는 『97우수국산한약재전시회』는 바로 이와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며 회원간에 새로운 재배기술 교류와 우수한약재전시 및 응용분야 개발 홍보와 판로개척등에 전시회의 큰 목적이 있다.

협회의 12개 도지부와 생산 회원이 참석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수한약재 홍보와 판로확대로 생약농업을 활성화하고 생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생약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소비자들에게 국산한약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이미지와 생약의 신뢰도를 함께 높이고 성과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 열리는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가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단체, 학계, 시민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한약재 '무역역조' 심각

97년 상반기 한약재 수출입동향

올들어 상반기 한약재 수출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반면 수입은 수출액의 40배를 앞지르고 있어 한약재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영배)가 최근 집계 발표한 지난 상반기동안의 한약재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백22만불 어치에 그친 반면 수입은 이보다 40배나 많은 4천9백50만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수출실적은 또 전년동기의 3백26만불 대비 62.5%가 감소한 것인 반면 수입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7백95만불 대비 3.2%가 증가 대비를 이뤘다. 더구나 의수협이 당초 예상했던 올한해 동안의 한약재 총 수출목표는 약 1천만불로 상반기 동안의 수출실적은 올 한해 목표의 12.2%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우리 한약재 수출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전체 수출한약재의 60~70% 정도를 차지하는 은행잎의 수출이 막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 것도 국내 수출실적에 큰 타격을 빚고 있다.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한약재 주요수출국인 일본을 비롯 대만 미국등지로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상반기동안 총 1백16만불 어치를 수출 전년동기의 3백14만불에 비해 무려 62.9%가 급락했다. 대만은 2만9천불 수출로 전년동기의 3만7천불 대비 19.4%가, 미국은 2만6천불 수출로 전년동기의 6만6천불 대비 60.1%가 각각 떨어졌다.

일본에 대한 한약재 수출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수출주력품목으로 그동안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수출해왔던 『삽도시호』의 수출길이 두절됨으로써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입실적 증가율은 중국이 1천9백96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6%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한약재를 수입하는 국가로 부동의 수위자리를 유지했고 녹용수입대국이 된 뉴질랜드가 1천2백만불(28.6%)로 그 뒤를 이었다.

수입실적은 또 소련이 5백37만불(93.7%), 브라질이 5백30만불(56.6%), 베트남이 1백18만불(0.9%)등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소련과 브라질의 한약재 수입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한약재 수·출입 동향

(단위 : US$)

구 분	국 가	97상반기	구성비	96상반기	구성비	증감률
수 출	일 본	1,166,501	95.4%	3,141,052	96.3%	▽62.
	대 만	29,980	2.5%	37,185	1.1%	▽19.
	미 국	26,358	2.1%	66,110	2.0%	▽60.
	기 타	-	-	16,884	0.6%	-
	계	1,222,839	100%	3,261,231	100%	▽62.
수 입	중 국	19,961,287	40.3%	20,700,850	20.2%	▽3.6%
	뉴질랜드	12,250,035	24.7%	9,522,900	9.3%	28.6%
	소 련	5,375,480	10.9%	2,775,550	2.7%	93.7%
	브 라 질	5,301,415	10.7%	3,406,800	3.3%	55.6%
	베 트 남	1,181,316	2.4%	1,192,292	1.2%	▽0.9%
	기 타	5,431,055	11.0%	10,352,295	10.1%	-
	계	49,500,588	100%	47,950,687	100%	3.2%

연간 한약시장 5천4백억 규모

국내생산 및 자연산 4천3백80억원 상당

국내에서 연간 소요되는 한약재는 8만2천6백여톤으로 5천4백3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입액은 1천1백32억원, 국내 생산 및 자연산은 4천3백80억원으로 수입산보다 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역은 수입한약재가 총 3백50여종(3만8천1백85톤) 1천1백3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산한약재는 ▲재배약재 60여종(4만2천7백69톤) 3천9백26억원 ▲자연채취 40여종(2천5백99톤) 60억원(추정) ▲녹용 37.8톤 4백18억원으로 1백여종 4천3백80억원 시장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엑기스제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비해 수출 한약재는 54종 9백73톤으로 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차 본격 개발

"성인병 예방효과" 농림부

믿틀레 잎이나 뿌리로 만든 국산 전통차가 개발된다. 또 성인병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삼지구엽초나 어성초로 만든 전통차도 일반에 선보인다.

농림부는 지난달 20일 믿틀레잎차, 믿틀레뿌리차, 녹차, 은행잎차, 뽕잎차, 컴퓨리차, 치코리차, 오갈피차, 머루차, 매실차, 삼지구엽초차, 홍화차, 어성초차 등 12개 품목을 국산 전통차로 본격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선인장 줄기차, 방아잎차, 아카시아꽃차, 진달래차 등 4개 품목을 장기개발대상으로 선정, 국산 전통차 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국산 전통차 개발에는 (주)태평양과 한일종합개발, 해송무약, 삼화한양식품 지리산차천지, 영동라이브 등 6개업체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참여키로 했다. 태평양은 녹차와 홍화차, 뽕잎차를 인스턴트차와 과립차로 개발할 계획이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어성초차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한일종합개발은 치코리차와 오갈피차를 액상차와 분말형태로, 해송무약은 은행잎차와 오갈피차를 티백과 과립형태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삼화 한양식품은 오갈피·치코리·머루·매실을 분말차와 액상형태로 개발하고 지리산차천지는 녹차와 뽕잎차를 반발효차, 발효차, 가향차, 씹어먹는 차, 분말차 형태로 만들어 시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삼백초 증류주 개발

충북 농진원 농산물가공연구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백초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꽃 들국화 향을 상품화한 증류주 제조법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 농촌진흥원 농산물가공연구팀은 한약재인 삼백초와 들국화 증류주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흥원 연구팀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지난해 시험재배에 성공한 삼백초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그 뿌리와 잎, 줄기를 달여 먹거나 분말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소비확대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등을 위해 지난봄 삼백초술 제조에 나섰다.

가장 많이 수입된 약재 '감초' '녹용'

의수협 국회 제출자료

올들어 가장 많이 수입된 한약재는 물량기준으로는 「감초」이고 금액기준으로는 「녹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올들어 8월말까지의 「10대 한약재 수입현황」에 따르면 감초는 1천8백6톤이, 녹용은 1만8천불 어치가 각각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0대 수입 한약재는 물량기준으로는 황정, 갈근, 지황, 백출, 복령, 창출, 홍화자, 계피, 빈랑등의 순을 보였고 금액기준으로는 우황, 녹각, 감초, 백출, 사인, 용안육, 황정, 복령, 창출 등의 순을 나타냈다.

10대 한약재 수입현황

물량기준

순위	품 명	수량(kg)	원산지
1	감 초	1,806,741	중 국
2	황 정	1,198,254	중 국
3	갈 근	1,126,676	중 국
4	지 황	1,112,185	중 국
5	백 출	998.758	북한·중국
6	복 령	952,751	중 국
7	창 출	830,200	중 국
8	황화자	761,770	중 국
9	계 피	750,001	중 국
10	빈랑자	637,436	중 국
총수입 합계	321종	22,909,173	-

금액기준

순위	품 명	가격(US$)	원산지
1	녹 용	18,890,426	중 국
2	우 황		일 본
3	녹 각	11,193,719	홍 가 리
4	감 초		중 국
5	백 출	5,351,250	북한·중국
6	사 인	3,513,986	미얀마·베트남
7	용안육	3,365,163	베 트 남
8	황 정	1,872,044	중 국
9	복 령	1,848,174	중 국
10	창 출	1,718,961	중 국
총수입 합계	321종	72,839,656	-

내방

△박재문 이사 △김용한 이사 △김성배 경기지부장 △장지홍 이사 △배성한 이사 △백문기 이사 △박종연 이사 △정춘순 서울 동대문구 사무소장 △이종범 서울 서대문구 공판장장 △신현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윤창권 경기 의정부시 공판장장 △남춘옥 경기 여주군 사무소장 △한만엽 경기 수원시 공판장장 △김우원 강원 화천군 사무소장 △조광호 강원 정선군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이한승 충북 제천시 사무소장 △최동진 충남 당진군 사무소장 △이관구 충남 서산시 사무소장 △정연수 전북 장수군 사무소장 △최병만 전북 김제시 공판장장 △최성기 전남 보성군 공판장장 △주성순 전남 여천군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감포사무소장 △김우홍 경남 군사무소장.